

韩国延世大学经典教材系列
中国韩国语教育研究学会推荐教材

한국어 6

韩国语教程6

[韩] 延世大学韩国语学堂 编著
张光军 审订

世界图书出版公司

《韩国语教程》(1-6)是从韩国延世大学引进的韩国语原版教材。延世大学韩国语学堂是韩国对外开展韩国语教学的权威机构,积累了丰富的教学经验和教材编写经验。这套《韩国语教程》(1-6)由韩国语学堂执教多年的资深教授集体编写,是一套极具权威性,又颇具实用性的教科书,被公认为韩国语学习的经典教材。

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首次引进这套教材,聘请国内著名外语院校一线教师进行编译,根据国内韩语教学特点进行了部分调整,特聘解放军外国语学院亚非语系主任、博士生导师张光军教授审订全文,从而使这一教材更加适合国内教学单位和自学者使用。

本教材为中国韩国语教育研究学会推荐教材,该学会轮值会长、韩国总统勋章获得者、北京大学韩振乾教授特为本书作序。

本教材主要特点如下:

- 教材内容新颖,课文所涉及的词汇、语法、句型等实用性很强;
- 教材由浅入深,由易到难,老师容易教,学生容易学;
- 一、二、三册配有练习册,练习题以培养学生举一反三能力为其宗旨;
- 每一册教材都配有超大容量mp3录音光盘,对提高学习者的听说能力大有裨益;
- 教材的教学要点与韩国语能力考试相关,有助于学生应试。



韩国延世大学经典教材系列
中国韩国语教育研究学会推荐教材

한국어 6 韩国语教程 6

[韩] 延世大学韩国语学堂 编著
张光军 审订

世界图书出版公司
北京·广州·上海·西安

图书在版编目 (CIP)数据

韩国语教程.6/ 韩国延世大学韩国语学堂编著.
北京: 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 2007.1

ISBN 978-7-5062-8597-1

I. 韩... II. 韩... III. 朝鲜语-教材 IV. H5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6) 第 137251 号

Copyright © 1994 by Yonsei University Press
ALL RIGHTS RESERVED

Simplified Chinese Edition © 2007 Beijing World Publishing Corporation

Chinese language edition arranged with Beijing World Publishing Corporation through PKAgency, Korea

This edition authorized for sal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ly.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publishers.

书 名: 韩国语教程 6

原 编 著: [韩] 延世大学韩国语学堂

审 订: 张光军

策 划: 韩美玲

责任编辑: 韩美玲

出 版: 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

发 行: 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

(北京市朝内大街 137 号 邮编: 100010 电话: 64077922)

销 售: 各地新华书店和外文书店

印 刷: 三河市国英印务有限公司印刷

开 本: 787 × 1092 1/16

印 张: 22.5

字 数: 500 千

版 次: 2007 年 1 月第 1 版 2007 年 1 月第 1 次印刷

版权登记: 图字 01-2006-4314

ISBN 978-7-5062-8597-1/H · 953

定价: 39.00 元 (含 MP3 一张)

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已获得韩国延世大学出版部授权在中国境内独家出版发行

版权所有 侵权必究

序 言

这套《韩国语教程》是从韩国延世大学引进的韩国语原版教材。延世大学的韩国语学堂是韩国对外进行韩国语教学的权威机构，几十年来培养了数以万计的外国留学生，也积累了非常丰富的教学经验和教材编写经验。这套《韩国语教程》是在韩国语学堂执教多年的老教授指导下集体编写出来的，因此这个教材既是多年教学经验的结晶，也是韩国语学堂集体智慧的体现，是一套韩国语教学方面权威性很强，又颇富实用性的教科书，因而它历来都颇受各国留学生的青睐。此次北京世界图书出版公司引进这套教材，并进行了适合中国情况的部分调整，增加了汉语对译方面的内容，从而使这一教材更加适合中国教学单位和自学者的使用，同时也从质量上提高了教材的实用价值。

这套教材归纳起来主要有以下几个方面的特点：

一，教材内容新颖，课文所涉及的词汇、语法、句型等实用性都很强，学生学了以后在和韩国人打交道的过程中一般都能用上，有很好的实用价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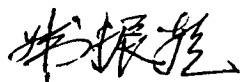
二，教材从第一册到第六册，都采用了由浅入深，由易到难的编写方法，没有深一脚浅一脚的跳跃感和无序感，老师容易教，学生容易学。

三，一、二、三册还都配有练习题专集，这些练习题都是围绕着课文展开，并以培养学生举一反三能力为其宗旨的，所以初学者使用起来非常方便，就是在没有老师指导的情况下也能达到无师自通的学习效果。

四，教材从第一册到第六册都配有录音光盘，学生在学习课文的同时还能自修所学内容的韩国语语音，这不仅对自学者学习韩国语有用，就是对在校学生课外复习也是很有用场的。

五，这套教材编写时由于充分考虑到了韩国语能力考试这一因素，所以教材的教学要点都与能力考试的等级是有所关联的。毋庸置疑，使用这套教材对学生参加韩国语能力考试也是很有帮助的。

这套教材能在我国首次亮相，无疑是一件值得高兴的事。我想，这套教材的出版一定会使很多的中国学生从中受益，而且对促进中国的韩国语教学也一定会起到积极的推动作用。



2006年12月

说 明

《**韩国语教程 6**》是为经过初、中级阶段学习的学习者准备的高级韩国语教材，该教材介绍了韩国人的思维方式以及韩国传统文化，以求对学习韩国语的人士有所帮助。

全书共分 10 课，每课由课文、词汇语法、句型练习、文化解说、讨论练习等部分构成。为方便学习者使用，书后还有附录，包括词汇索引和语法索引。

课文分为 5 段。其中，前 4 段是由 8 句话构成的对话，最后一段是文章。

词汇在对话中根据不同的主题按照使用频率的高低逐步出现，而在语法和句型练习中则充分考虑到词频之外的多样性。在对词汇进行说明时，本书既参考了词典的权威释义，同时又从学习者的角度出发，重点讲解词汇的使用方法。部分词汇的用法很多，针对此类词汇，本书围绕对话中出现的用法进行解释。为帮助学习者理解，词汇解说之后附有例句。

语法以初中级语法知识为基础，逐步讲解高级语法。为便于学习者理解，本书特别添加了语法使用时的前提条件以及语境等内容。

句型练习的目的是让学习者灵活运用语言。为了让学习者能根据外部刺激自发地、习惯地表达自己的思想，本书特将句型练习单独列出。这样不仅可以让学生在句子结构中熟悉语法的特点，将语法知识转换为实际语言能力，还有助于掌握语音规则和学习词汇。

文化解说选用与课文内容相关的文章，介绍韩国文化，使学习者加深对课文的理解，并且在学习语言的过程中也对韩国文化有了一定的感性认识。

讨论练习是学习者结束每课的学习后，以座谈或讨论的形式表达自己

的想法，通过书面表达和口语练习提高韩国语水平。

进入高级阶段，MP3 光盘中每课加入 2-3 段听力材料，其内容与课文相关，旨在帮助学生提高听力水平，深化对课文的理解，并扩大知识面。

차 례

序 言	1
说 明	3
제 51 과 고향	1
1. 낮익은 느티나무 2. 머나먼 고향 3. 타국에서	
4. 고향 사람 5. 고향	
어휘와 문법	6
문형연습	16
문화해설: 한국인의 귀향(歸鄉)	32
이야기해 봅시다	34
제 52 과 민간 신앙	35
1. 할머니와 손녀 2. 고사 3. 돼지꿈	
4. 궁합 5. 민간 신앙	
어휘와 문법	40
문형연습	52
문화해설: 사주팔자	68
이야기해 봅시다	69

제 53 과 한국의 가족제도 71

1. 어른을 모시는 생활 2. 맏며느리 3. 맏벌이와 분가
4. 맏벌이 부부 5. 오늘의 가족제도

어휘와 문법 76

문형연습 85

문화해설: 족보 102

이야기해 봅시다 104

제 54 과 사랑 105

1. 첫사랑 2. 영원한 친구로 3. 애기 좀 하자구요.
4. 내리사랑 5. 사랑이란?

어휘와 문법 111

문형연습 122

문화해설: 춘향이의 사랑 139

이야기해 봅시다 141

제 55 과 교육 143

1. 좋은 육아법이란? 2. 부모의 교육열 3. 진학 상담
4. 어느 장학금 5. 교육의 어제와 오늘

어휘와 문법 149

문형연습 163

문화해설: 어머니의 교육 180

이야기해 봅시다 181

제 56 과	우정	183
1. 길을 떠나면서	2. 강릉 경포대에서	3. 죽마고우
4. 친구 집에서	5. 우정	
어휘와 문법.....		188
문형연습		199
문화해설: 선비의 벗-윤선도의 〈오우가(五友歌)〉-		216
이야기해 봅시다.....		218
제 57 과	현대인의 생활	219
1. 현대 생활과 두통	2. 신경성 위장 장애	
3. 입시공부와 스트레스	4. 스트레스 해소	
5. 현대인과 정신, 신체 장애		
어휘와 문법.....		225
문형연습		235
문화해설: 신선이 되는 법		251
이야기해 봅시다.....		253
제 58 과	토론	255
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가	2. 체벌은 필요한가?	
3. 종교는 필요한가?		
4.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려야 하나요?		
알리지 말아야 하나요?		
5. 토론		
어휘와 문법.....		262
문형연습		270

문화해설: 조선시대의 언로-상소(上疏) 283

이야기해 봅시다..... 285

제 59 과 역사 속의 인물(I)..... 287

1. 소월 김정식(1902~1934) 2. 도산 안창호(1878~1938)

어휘와 문법..... 294

문형연습 301

문화해설: 역사 속의 인물 310

이야기해 봅시다(I)..... 312

제 60 과 역사 속의 인물(II) 313

1. 신사임당(1504~1551) 2. 다산 정약용(1762~1836)

3. 원효대사(617~686)

어휘와 문법..... 321

문형연습 333

문화해설: 한국의 불교 344

이야기해 봅시다..... 346

단어색인 · 347

문법 요소 색인 · 355

제 51 과

고 향

1. 낮익은 느티나무

여동생 : 오빠, 피곤하지? 반나절이나 차에서 시달렸더니 허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오빠 : 그래도 오랜만에 흙냄새를 맡으니 날아갈 것 같은데…. 저논의 황금물결 좀 봐. 여기 살 땐 통 몰랐는데, 역시 자연이 좋기는 좋구나.

여동생 : 이 느티나무 밑에서 술래잡기하다가 물에 빠진 생각나? 왜, 그 때 새 한복을 다 버려 가지고 둘이 벌췄잖아.

오빠 : 넌 참 기억력도 좋구나. 그보단 네가 그날 밤에 열이 오르고 막 헛소리를 해 대서 난 어린 맘에도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밤을 꼬박 새웠단다.

여동생 : 난 참 듣는 애긴데…. 어려서 난 항상 곁에서 오빠가 지켜주니까 괜히 빠지고 돌아다녔지 뭐. 왜 나만 보면 부러워하던 단짝 친구 미영이는 우리 집에서 살다시피 했잖우. 그땐 철이 없어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개가 오빠를 짝사랑했었나 봐.

오빠 : 예나제나 수다는 여전하구나. 애, 서두르자. 아버지, 어머니께서 대문을 열 번도 더 드나드셨겠다.

2. 머나먼 고향

이 선생 : 제가 또 깜빡 잊었군요. 선생님을 이 곳에 모시고 오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김 선생 : 가지 말까 하다가도 금방 마음이 변하거든요. 전 여기로 학생들을 데리고 올 때마다 후회를 하곤 하지요.

이 선생 : 왜 안 그러시겠어요? 선생님의 아픈 심정을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부친께서 생존해 계시다면 저쪽 산 너머 그 곳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김 선생 : 너무 연로하셨으니 이젠 만나 뵈 희망을 버려야겠죠. 지금은 영 딴 나라같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여기 오면 아버님이 가까이 계신 듯이 느껴져요.

이 선생 : 이제는 마치 이곳이 관광명소같이 되었으니... 정말 저쪽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에게는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일 거예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당한 분들이 너무도 많군요.

김 선생 :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곳 비무장 지대에서 사는 새들은 자유롭게 이쪽 저쪽을 넘나 들겠지요?

이 선생 :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서 이런 슬픈 일이 없어져야 할 텐데요.

김 선생 : 제가 이 선생님까지 우울하게 만들었군요. 우리 화제를 바꾸어 기분전환합시다.

3. 타국에서

-교환교수로 미국에 온 이 교수는 어느 날 한인교회 신자들로부터 저녁 초대를 받았다.-

박 목사 : 이 교수님, 객지에 계시니 고생이 많으시지요? 저희들이
오늘은 특별히 한식만 준비했으니 많이 드십시오.

이 교수 :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고향 분들과고 모여서 이렇게 정담
을 나누고 우리 나라 음식을 먹으니 마치 고향 집에 온
것같이 푸근하군요. 그런데, 이런 음식 재료는 다 어디서
구하시는지요?

박 목사 : 여기서도 찾아 보면 없는 것이 없죠. 마음만 먹으면 뭐든
지 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이 교수 : 여기 오신 지 10년이 넘으셨는데도 음식맛은 그대로군요.

박 목사 : 어디 음식뿐입니까? 이제 이곳 생활에는 아무 지장이 없
을 정도로 익숙해졌지만 우리만이 가진 음식맛이나 고국을
향한 애정은 날이 갈수록 더 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교수 : 저도 서울을 떠나오기 전만 해도 이토록 내 나라, 내 집이
좋은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박 목사 : 살아가느라 모두 바쁘지만 가끔씩 시간을 내서 고향에서
오신 분들과고 우리 말로 얘기를 나누면서 향수를 달래
보지요. 아, 참, 이 교수님을 꼭 뵙고 싶어하는 분이 있는
데 만나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이 교수 : 그 분이 누구데요?

4. 고향 사람

할머니 : 혹시 서울에서 오신 이인수 교수가 아니신가요?

이 교수 : 예, 맞습니다만 절 어떻게 아십니까? 어디서 많이 뵈 것 같은데요.

할머니 : 아이구, 틀림없군요. 원, 이렇게 반가울 데가 어디 있담. 옛날에 수원에서 댁과는 담 하나 사이로 한 집같이 지냈죠. 자세히 보니까 어렸을 적 모습이 남아있군요.

이 교수 : 아, 네. 저 김주한 박사 자당이지군요.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식이 끊어져 어떻게 하면 뵈 수 있을까 했는데요.

할머니 : 우리 둘째 애가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아무래도 선생님이 틀림없다기에 내가 확인하러 일부러 이렇게 왔다우. 참 어르신께서는?

이 교수 : 연로하시지만 두 분 다 건강하세요. 요즘은 고향에 있는 농장을 돌보시느라 바쁘십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 고향에 다니러 안 가세요?

할머니 : 왜 안 가고 싶겠나? 한번 간다 간다 하면서도 여태 못 갔지. 아이들이야 여기가 제2의 고향이라지만 나야 꿈에도 못 잊는 그 곳이 고향이 아닌가? 자나깨나 눈 앞에 어른거리지.

이 교수 : 언제 한번 꼭 가셔서 제 어머님하고 회포를 푸셔야지요.

5. 고향

우리들은 나이가 들수록 고향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 나이가 들어서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아득하고도 그리운 고향을 더듬는 것인지 어쨌든 어제의 일을 다시 그려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 그리고 이런 심정이 되면 과거를 미화시키고, 다시는 누려 볼 수 없는 행복했던 감정을 기억에서 되살려 내어 옛 생각에 잠긴다. 그것은 마치 화가들이 자기의 작품 속에서 지난날의 인상을 더듬는 것과도 비슷할 것이다.

고향이 그리운 것은 자연이나 환경 때문만은 아니다. 풍속과 습관이 합쳐진 조화로운 삶의 분위기가 그대로 우리들의 고향으로 가슴에 남아 있다.

고향의 내음은 그 내용이 풍부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향수 또한 아름답고 유구한 것이 아닐까?

고향! 불러 보기만 해도 얼마나 다정다감한 말인가?

고향이 없는 사람도 있을까?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 일생을 한 곳에서 자라고 또 거기서 죽으면 고향이 그리운다는 느낌 같은 것은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거기서 떠나 있을 때 비로소 산과 냇물과 나무가 정겨운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나타날 것이다. 어릴 때 같이 놀던 동무들과 함께 동심을 나누던 추억의 고장, 포근한 어머니의 품처럼 안기고 싶은 곳이기때 고향은 그 누구의 가슴에서도 지워버릴 수 없는 곳이다. 그 곳에 두고 온 그 많은 사연을 생각하면 정답지 않은 것이 어디 있으랴?